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58호

2025.09.11.(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미국·반도체	美, 삼성·SK하이닉스 VEU 지위 종료	중국·구리	中 경기 위축으로 9월 구리 가격 하락
미국·반도체	오픈AI, 자체 AI 반도체 칩 생산	한-미·전기차	포스코인터, 북미서 대규모 구동모터코어 계약
카자흐·희토류	카자흐스탄, 대규모 희토류 매장지 발견	한-미·배터리	SK온, 미국서 2조 원 규모 ESS 첫 수주
중국·반도체	정부 압박에도 中 기업들은 엔비디아 선호	미-중·장비	美, 中 실험실서 전자장비 테스트 금지

공급망 이슈 포커스

미-중·반도체	[미-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 패권을 둘러싼 美-中 정책의 대립
글로벌·구리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구리 가격, 5개월래 최고치 찍고 中 수요둔화로 하락 전환
미국·반도체	[AI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오픈AI, 브로드컴과 협업해 자체 AI 반도체 칩 생산

산업·품목 심층분석

중국·핵심광물 갈륨, 게르마늄: 첨단산업 공급망을 움직이다

원자재 뉴스 PLUS

에너지 中-러 가스관 프로젝트, 가격 협상의 난관에 부딪혀



II. 월간 공급망



호주와의 핵심광물 협력, 한국 첨단산업 도약의 열쇠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글로벌 전략 광물의 생산 편중 현황 및 시사점



IV. 공급망 소식통



- ①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수출상담회 (바이어·국내기업 모집 ~9.12.)
- ② 2025 FTA를 활용한 글로벌사우스 진출 설명회 (상담회 선착순 마감)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연번	주요 공급망 이슈	일자	이슈 내용	자료원
1	미국, 반도체 美, 삼성·SK하이닉스 VEU 지위 종료	9.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제도를 연내 종료 ✓ 대신, 연간 수출 허가(site license) 방식으로 공급을 승인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 	로이터
2	중국, 구리 中 경기 위축으로 9월 구리 가격 하락	9.3.(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까지 상승하던 구리 가격이 중국의 건설업 경기 위축으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 ✓ 단, 달러인덱스 하락세가 지속되며, 향후 구리 가격 상승 가능성성이 제기됨 	mining.com
3	미국, 반도체 오픈AI, 자체 AI 반도체 칩 생산	9.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tGPT 개발사 오픈AI와 브로드컴이 협업해 AI 반도체 칩 'XPU'를 자체 개발함 ✓ 이는 내년 출시 예정이며, 양사 간 1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됨 	로이터
4	한-미, 전기차 포스코인터, 북미서 대규모 구동모터코어 계약	9.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북미 지역 업체와 6천억 원 규모의 구동모터코어 공급 계약을 체결 ✓ 이는 구동모터 300만 대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 대상은 NDA에 따라 공개되지 않음 	연합뉴스
5	카자흐, 희토류 카자흐스탄, 대규모 희토류 매장지 발견	9.2.(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동부에서 2천만 톤 이상의 희토류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지 발견 ✓ 이번에 발견된 매장지의 희토류량이 확인되면, 카자흐스탄은 세계 3위의 희토류 매장국이 됨 	아스타나 타임즈
6	한-미, 배터리 SK온, 미국서 2조 원 규모 ESS 첫 수주	9.4.(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온은 美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에 2조 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를 수주함 ✓ 이에 SK온은 매사추세츠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ESS 제품을 내년에 공급 예정 	조선일보
7	중국, 반도체 정부 압박에도 中 기업들은 엔비디아 선호	9.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압박에도 알리바바, 텐센트 등 中 기술기업들은 엔비디아의 H20 칩을 선호 ✓ 이들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후속 제품인 'B30A' 출시 소식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로이터
8	미-중, 장비 美, 中 실험실서 전자장비 테스트 금지	9.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연방통신위원회(FCC)는 中 소유의 실험실 7개에 대해 수입 전자장비 테스트를 금지할 예정 ✓ 금지 사유는 국가안보이며, 미국 내 전자장비의 상당수는 中 내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거침 	로이터

◆ 주간 이슈 포커스

① 미·중 공급망 이슈 돌보기

미·중,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산업 패권을 둘러싼 美-中 정책의 대립

美, 글로벌 반도체기업에게 “中으로 장비 반출 시 건별 허가 받으라”

- ▣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 내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4개 기업(삼성·SK하이닉스·인텔·TSMC)에 대해 해당 지위를 철회하고, 연간 단위의 한시적 라이선스 발급을 검토 중

* Validated End-User Program, 미 상무부가 신뢰할 수 있는 해외기업에 특정 품목의 개별 허가 없이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

-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및 D램 생산의 40%를 중국에서 하는 것에 비해 TSMC의 중국 내 생산 비중은 약 3%에 불과함

▶ 이에,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VEU 지위 철회 조치가 같은 시점에 적용될지라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질적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

VEU 지정 대상 기업(EAR 748조 부록7)

대상국	기업명	허가면제 대상 품목	철회발표일	발효일
중국	AMD	반도체 관련 SW 및 기술 (3개)		
	Intel	반도체 제조 장비 등 (9개)	'25.8.29.	120일 후
	Applied Materials	반도체 제조 장비 등 (11개)		
	보잉	소재 관련 검사 장비 및 SW 등 (5개)		
	램리서치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부품 등 (7개)		
	삼성전자	NAND 개발생산 관련 모든 EAR 품목	'25.8.29.	120일 후
인도	SK하이닉스	DRAM 개발생산 관련 모든 EAR 품목	'25.8.29.	120일 후
	GE	항공 관련 기술 등 (13개)		
VEU 지위 보유 기업(EAR 748조로 관리되지 않으나, 이에 준하여 허가 면제)				
대상국	기업명	허가면제 대상 품목	철회발표일	발효일
중국	TSMC	팹 운영에 필요한 모든 EAR 품목	'25.9.3.	'25.12.31

출처: Bloomberg(9.8.), 매일경제(9.4.)

中, 기업·품목에 대한 정책적 조치로 美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응



- ▣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Unreliable Entity List)’와 ‘관제 목록’을 운용하여 위와 같은 글로벌 견제 조치에 대응하고 있음

-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지정된 기업들은 국가 안보상 위험 요소로 판단되어, 중국 내 수출입 활동, 신규 투자, 임원 입국 등이 금지되며, 각종 영업 허가·비자·체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 ‘관제 목록’에 지정된 기업의 경우, 주로 첨단기술 및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입과 관련되어 해당 품목의 거래가 통제되고, 수출 허가 등 사전 승인을 요구받음

* 민간 용도와 군사 용도 모두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의미함

- ▣ 두 제도는 미국의 첨단기술·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맞대응이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

구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관제 목록
적용 대상	외국기업·개인(주로 미국기업)	제품·기술·기관 중심
기업명*	브로드컴, 인텔, 마이크론, 엔비디아, 퀄컴, AMD, 케이던스, 시냅시스 등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KLA, 퀄컴,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지정 사유	국가안보 및 경제·정치적 위협이 되는 기업	공급망 안보상 위협을 가하는 품목·기술
제재 방식	수출입·투자·입국 전면 금지 등	수출허가제와 같은 제한적 제재
영향 범위	특정 기업	산업·품목 공급망 전반

* 다양한 반도체·방산·바이오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표에서는 반도체기업에 한정하여 소개함

출처: KOTRA 베이징무역관 자료 종합(3.5., 4.9.), 신화망(1.3.), 무역안보관리원(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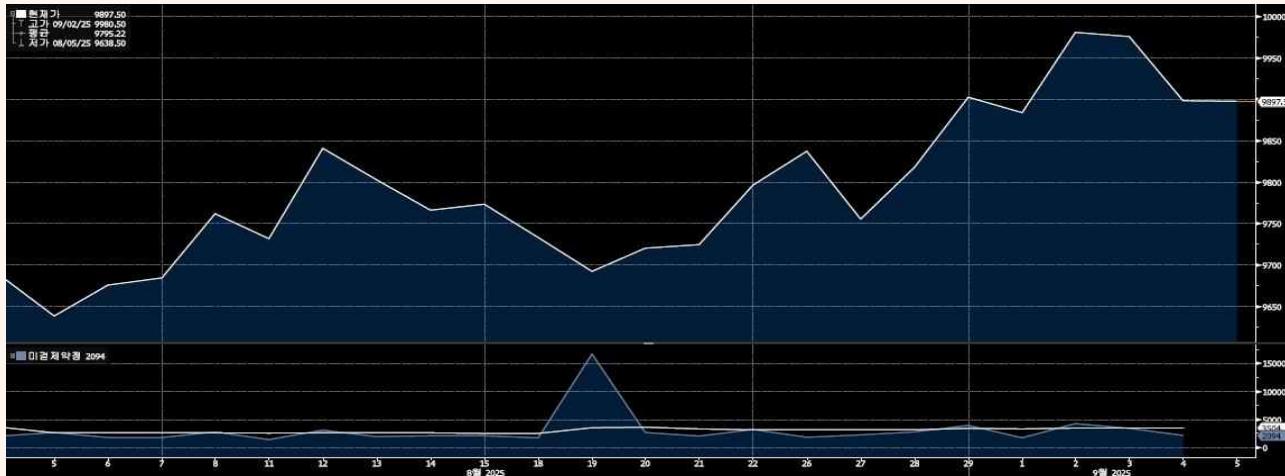
②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글로벌, 구리 구리 가격, 5개월래 최고치 찍고 中 수요둔화로 하락 전환

▣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 조짐으로 5개월간 상승하던 구리 가격이 중국의 수요둔화·재고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해 9월에 하락세로 전환함

▶ 2025.8~9월 구리 주간 평균 가격 추이

(자료: 블룸버그)



위 그래프와 같이 LME 기준으로 9.5일 구리 현물 가격은 톤당 9,881달러로 하루 전 대비 0.7% 하락하며 최근 2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COMEX 기준으로도 9월 초 들어 하락세를 기록하여 파운드당 4.47~4.49 달러에서 약세를 유지하고 있음

▣ '25.8월 중국의 건설업 PMI 하락 및 구리 재고량 상승은 중국 제조·건설업 경기의 위축과 공급과잉 국면을 나타내지만, 최근 달러가치 하락 기대 심리가 향후 구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 건설업 PMI 50 미만



중국 건설업 PMI는 8월부터 50을 하회하여 제조업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음을 나타냄

중국 구리 재고량 30% 상승



중국 구리 재고량은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9월에 약 15~16만 톤 수준을 유지하여 중국 내 수요 위축과 공급과잉을 나타냄

달러 인덱스 하락세 지속



단,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이에,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전망이 제기됨

▶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 ▶ (달러가치와 원자재 가격의 역상관성)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기에,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비달러권 국가들의 구매 비용이 감소하므로, 원자재 수요는 늘고,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음
- ▶ (위험자산 선호에 따른 투자 수요) 달러가치의 약세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 인플레이션 기대 및 위험자산 선호로 해석되어 투자자들은 달러를 보유하기보다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짐

출처: NBS(9.8.), SunSirs(9.8.), Trading Economics(9.8.), mining.com(9.3.), 산업일보(8.6.)

③ AI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미국, 반도체 오픈AI, 브로드컴과 협업해 자체 AI 반도체 칩 생산

AI가 선정한 이슈

2025.9.1일부터 9일까지의 공급망 이슈를 종합 분석한 결과, 9.4일 보도된 “**오픈AI의 자체 AI 반도체 칩인 XPU 생산 계획**”이 가장 시의성과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Q. 오픈AI의 자체 설계 AI 반도체 칩 XPU 생산의 의의는?

A.

엔비디아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에서 오픈AI가 직접 맞춤형 AI 칩을 설계·생산하면서, 구글·메타 등 빅테크기업의 AI 반도체 자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이 자체 기술로 차별화에 나서면서 반도체 공급망과 시장 주도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용 GPU 대신 각 서비스 모델에 맞는 효율적인 전용 칩을 개발함으로써, 대규모 AI 학습·추론에 필요한 성능·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AI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기술 경쟁의 새로운 단계입니다.

Q. 이번 이슈가 우리나라 기업에 시사하는 바는?

A.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기업은 오픈AI XPU 생산 시 첨단 파운드리와 HBM·차세대 메모리 공급 등 신규 대형 수주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AI 특화 칩 분야로 다극화가 진행되며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파트너십·시장 진입 기회를 확보하고, 맞춤형 서비스용 반도체 생태계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슈 더 알아보기

파이낸셜 타임즈는 오픈AI가 브로드컴과 협력해 맞춤형 AI 칩을 개발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출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함. 맞춤형 칩인 XPU 생산은 1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로 밝혀짐

▷ 엔비디아 독점 체제 균열의 시작점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칩 시장에서 약 80~90%의 절대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센터용 AI 엑셀러레이터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AMD, 인텔이 각각 5~10% 수준의 점유율로 뒤를 잇고 있으며, 구글·브로드컴·아마존·테슬라 등 자체 칩을 생산하는 빅테크의 발전이 최근 두드러지는 추세임

▷ XPU 생산으로 달라지는 ChatGPT-5

XPU는 초기대 AI 모델의 학습·추론 효율, 처리 속도, 에너지 비용까지 대폭 개선할 수 있음. 칩 개발단계에서 네트워크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어 서버 응답속도와 대기 시간이 단축될 예정임. 또한 오픈AI가 칩부터 소프트웨어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전 과정에서 효율과 혁신을 동시 달성할 수 있음. 이에 ChatGPT-5의 가격 경쟁력도 확대될 전망임

출처: ZDNET(9.8.), Yahoo Finance(6.7.)

▶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AI 반도체 칩 현황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여 자사 서비스에 직접 적용하고 있음

기업	AI 반도체 칩	사용 서비스	강점 및 특징
구글	TPU	Gemini, Bard, YouTube, 구글번역, 구글검색	AI 딥러닝·추론 특화, 대형 언어모델 및 추천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소프트웨어와의 통합
메타	MTIA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Meta Llama	광고·피드 추천, 대규모 트래픽에 맞춘 효율화, 커스텀 아키텍처 설계, 비용 절감
테슬라	D1(Dojo)	자율주행 FSD, 비전 인식, 영상 AI(자율주행차)	초고속 학습·추론 능력, 대규모 동시 연산, 빠른 처리속도, AI 슈퍼컴퓨터 구축
오픈AI	XPU	ChatGPT-5, DALL-E 등 차기모델	초거대 언어모델, 브로드컴과 협작한 맞춤형 모델, 효율성·성능·비용 최적화, 서버 확장성 강화

출처: Google, Meta, Data Science Dojo, WSJ(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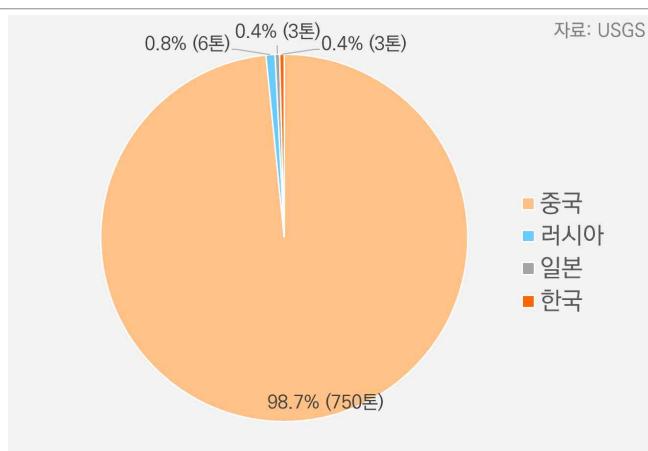
◆ 산업·품목 심층 분석

중국, 핵심광물 갈륨, 게르마늄: 첨단산업 공급망을 움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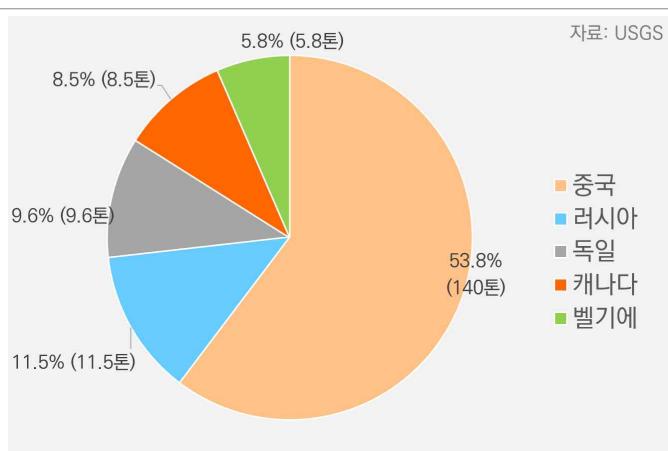
2023.8월, 중국은 첨단산업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서, 글로벌 첨단산업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2024.12월, 중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의 대미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지형의 변화가 심화됨. 이는 수출통제 강화로 인한 전략적 광물자원 확보 및 정치적·경제적 대응조치의 의미로 해석됨. 이번 산업·품목 심층 분석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광물자원의 중요성, 각국의 확보 전략을 살펴보고, 차세대 대체자원을 소개하고자 함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공급망 지배력

▶ 2024년 글로벌 갈륨 생산량



▶ 2024년 글로벌 게르마늄 생산량



2024년 기준,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의 편중 현상이 뚜렷함. 갈륨의 연간 글로벌 생산량은 약 762톤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중국이 750톤을 생산해 전체 생산량의 약 98.7%를 차지함. 이는 러시아·한국·일본 등 나머지 국가들의 생산량이 3~6톤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점적인 지위가 두드러짐. 게르마늄 역시 중국의 점유율이 두드러짐. 2024년 전 세계 게르마늄 생산량은 약 260톤으로 집계되며, 중국이 140톤(53.8%)을 생산해 세계 최대 공급국의 지위를 차지함. 러시아·독일·캐나다·벨기에가 그 뒤를 잇지만, 생산량을 합해도 중국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함

단, 두 광물 모두 매장량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는 제공되지 않음. 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이 보크사이트, 아연광석, 석탄에서 부산물로 회수되기 때문임. 즉, 독립적으로 채굴되지 않고 다른 광물의 제련 과정에서 회수되므로, 이론상 매장량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특히, 게르마늄은 회수율이 3%로 매우 낮아, 자원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가 큼. 또한 기업 혹은 국가 차원에서 생산량을 기밀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공식 통계가 부재한 상황임

▶ (참고) 갈륨·게르마늄 특징 비교

갈륨	구분	게르마늄
은색의 무른 금속	겉보기	은회색 반도체형 금속
알루미늄과 유사, 산과 알칼리에 대응해 수소 가스 발생시킴	화학적 특징	가열 시 산화되어 이산화게르마늄이 되어 높은 굴절률과 낮은 분산률을 가짐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료)의 부산물	채굴	아연광, 석탄 부산물로 회수
반도체, 태양전지, 광통신 등	산업적 용도	광섬유, 군수, 이차전지 등

▣ (참고) 갈륨·게르마늄 제조공정



서방권 국가의 갈륨·게르마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첨단기술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3.8월, 중국은 갈륨·게르마늄 등 이중용도 광물의 수출통제를 본격화함. 특히, 2024년에는 최종 사용자 심사를 대폭 확대하여, 해당 광물을 포함한 완제품이나 부품의 수출을 통제했으며, 제3국을 경유하는 수출까지도 통제하는 등 통제 범위와 수준을 강화함. 이에 갈륨·게르마늄의 글로벌 수급이 크게 불안정해졌으며, 전 세계 주요국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내재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EU는 2024.3월 채택한 핵심원자재법(CRMA)*에 기반하여 역내·외에서 전략 프로젝트 60건을 승인하였음. 이중 그리스의 'METLEN 갈륨 생산 프로젝트'가 대표적임. 이는 그리스의 METLEN Energy & Metals가 약 2.96억 유로(약 4,800억 원)를 투자해 연간 50톤 규모의 갈륨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것으로, 유럽 최초의 대규모 갈륨 자립화 투자임. 해당 프로젝트는 보크사이트 광산 연계 생산, 알루미나 가공시설 증설, 반도체 및 첨단소재 공급망 구축까지 EU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될 것으로 전망됨

* 2030년까지 역내에서 연간 소비량의 10% 이상을 채굴하고, 40% 이상을 정제·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65% 이상의 특정 국가 의존을 금지해, 공급선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을 통해 광물 채굴·정제·재활용에 대한 투자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음. 또한 MSP와 같은 다자 협의체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동맹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프렌드쇼어링' 전략의 예시로 지난 8.25일에 체결된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우리나라 고려아연의 게르마늄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들 수 있음.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중국·북한·이란·러시아 이외 국감에서 제련한 게르마늄을 록히드마틴에 공급하게 됨

또한 미국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Nyrstar의 테네시주 아연 제련소에서 연간 40톤의 갈륨과 30톤의 게르마늄 생산을 지원하고 있음. 이 제련소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급 갈륨과 고순도 게르마늄을 생산하는 유일한 시설로, 미국 내 수요의 80%를 생산하고 있음

고려아연-록히드마틴 게르마늄 공급망 협력

위에서 소개한 록체드마틴과 고려아연의 한·미 게르마늄 공급망 협력은 게르마늄과 같은 핵심광물이 정치 및 경제 안보의 레버리지로 사용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며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추진된 동맹국 간 협력체계임

고려아연은 약 1,400억 원을 투자해 울산 온산제련소 내에 게르마늄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함. 이 공장은 2026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시운전을 거쳐, 2028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고순도 이산화게르마늄 약 10톤을 생산할 예정임. 이는 한국 최초이자 유일의 대규모 게르마늄 생산 시설로, 국내 첨단 전략산업 공급망의 중요한 거점이 될 전망임

온산제련소의 신규 공장은 기존 시설에서 아연 등을 생산하면서 쌓인 부산물로 고순도 게르마늄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점이 특징임. 비철금속 제련기술과 희소금속 회수 노하우를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솔루션을 구현함. 기존 글로벌 게르마늄 공장이 대부분 중국·러시아 등 내수 위주의 소규모 공장인 반면, 온산 시설은 대규모 양산 및 고부가가치화된 친환경 스마트 공장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철강금속신문 제공)

온산제련소의 신규 게르마늄 공장이 갖는 지정학적 의의는 매우 큼. 첫째, 한·미 정상회담으로 고려아연과 록체드마틴 간 게르마늄 공급·구매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세계 최대 방산기업에 한국산 고순도 게르마늄의 전략적 공급이 본격화됨. 이는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던 미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실제로 이루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둘째, 한국이 경제안보의 최전선에서 핵심광물 내재화와 글로벌 동맹의 결과를 구체화한 유의미한 성과로 볼 수 있음. 또한 부산물에서 재자원화하여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이루어내는 “Closed Loop” 생산공정을 국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갈륨·게르마늄의 대체제와 기술 혁신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체 소재 및 기술개발은 중국의 수출통제와 공급망 위험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2023.8월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허가제를 시행하고 2024.12월 대미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체재 확보와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음

갈륨의 대체 소재로 산화갈륨(Ga₂O₃), 인듐갈륨산화아연(IGZO), 실리콘카바이드(SiC) 등이 개발되고 있음. 산화갈륨은 기존 질화갈륨(GaN)보다 높은 전압과 온도를 견딜 수 있어 전력반도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인버터와 충전기 등에서 활용도가 높음. IGZO는 인듐·갈륨·산화아연으로 구성된 금속 산화물 소재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3D 디램과 4F스퀘어 기술에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갈륨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됨. 게르마늄의 경우 실리콘이 가장 대표적인 대체재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저렴한 비용과 풍부한 매장량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음. 또한 일본에서는 안티몬이나 게르마늄 같은 희귀 금속 촉매를 대체하는 PET 제조 기술이 개발되어 자원 보호와 제조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음.

이러한 대체 소재들은 각각 고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산화갈륨의 경우 우수한 내열성과 전압 내성이 장점이나, 생산 기술이 복잡하고 대량생산 경험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음. IGZO는 우수한 전자 이동도*를 제공하지만, 인듐 등 희소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수급 차질 우려가 있음. 실리콘의 경우, 재고가 많고 저렴하나, 게르마늄 대비 성능이 떨어져 고성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임. 특히 광섬유 통신이나 적외선 감지 분야에서는 게르마늄의 고유한 특성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기술적 한계가 존재함. 그럼에도 각국은 공급망 다변화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대체재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재자원화 기술으로 기존 소재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

* Electron Mobility; 금속이나 반도체 내부에서 전자가 전기자장에 의해 이동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전자가 얼마나 빠르고 쉽게 재료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재료의 전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출처

-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2025). USGS.
- China in Control, But New Production Coming in the West. (2025). RFC Ambrian.
- (N.d.). Google Patent.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101473716B1/ko>
- 고려아연. (2025, August 27). 한경. Google Patent.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274953P>
- 김계환, 양주영, 조은교 외(2023), 「경제안보 기술동맹 시대 한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오정미. (2024). 중국 상무부,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 對미국 수출통제 강화 발표 (수출통제 Issue Report). 무역안보관리원.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에너지 中-러 가스관 프로젝트, 가격 협상의 난관에 부딪혀

▣ 중국과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프로젝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공급 가격이 최종합의의 장애물로 남아 있음

*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건설사업으로, 러시아는 30년간 연간 500억㎥의 가스를 공급 가능

◆ 러시아는 유럽에 제시한 금액과 비슷한 공급 가격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더 낮은 가격을 원하고 있음

◆ 러-우 사태 이후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감소하면서, 러시아는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해 해당 프로젝트 사업의 가속을 원하고 있으나, 중국은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임

출처: SCMP(9.3.), 타임즈(8.29.)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9월 1주)

비철금속 | 금리인하 기대 및 생산 축소 전망으로 동 가격↑, 인니 채굴 쿼터 축소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8월	전년비(%)	8.4주	9.1주	전주비(%)
동	9,147	9,502	3.9	9,725	9,829	1.1%
니켈	16,812	15,270	△9.2	15,026	15,131	0.7%
아연	2,779	2,747	△1.1	2,786	2,868	2.9%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美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상승 및 中 공급 차질 우려와 주요 제련소의 생산 축소 전망으로 인해 9월 1주차 전기동 가격 상방 압력 발생

◆ 단, 9월 2주차에 중국 제조·건설업 경기 위축 및 공급과잉 국면으로 동 가격 하락세 전환

▣ (니켈) 인니 니켈 채굴 할당량 축소 및 반정부 시위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으로 니켈 가격 상승

철강 | 수요 위축 및 생산 증가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8월	전년비(%)	8.4주	9.1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08.26	△20.6	110.14	109.8	0.3%
원료탄	240.90	184.09	△23.6	185.7	185.1	△0.3%
철광석	109.89	100.44	△8.6	102.86	102.49	△0.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유연탄) 中 등 주요 산지의 공급과잉 및 글로벌 수요둔화에 따른 유연탄 가격 하방 압력 심화

▣ (철광석) 中 전승절 행사 이후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 축소 및 주요 생산지의 선적량 증가로 철광석 가격 하방 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9월 1주)

희소금속 원료가격 하락 및 충분한 공급 물량으로 탄산·수산화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8월	전년비(%)	8.4주	9.1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083	△9.8	1,048	1,043	△0.5%
탄산리튬	12,526	9,764	△22.1	11,229	10,571	△5.9%
수산화리튬	11,398	9,247	△18.9	10,907	10,467	△4.0%
코발트 (U\$/lb)	16.25	17.97	10.6	19.5	19.5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46,869	△4.1	246,600	251,100	1.8%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65,343	17.3	91,320	92,660	1.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탄산리튬)** 리튬 원료가격 약세 및 충분한 현물 공급으로 광저우 선물거래소 11월 탄산리튬 계약 가격 하락세 기록

▣ **(수산화리튬)** ▲시장 수요 부진 ▲시장 내 충분한 공급 ▲원료가격 하락으로 수산화리튬 가격 하락

에너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및 금리인하 전망으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8.4주	9.1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1.38	△8.20	69.96	70.86	0.89
브렌트유	79.86	70.11	△9.75	68.16	67.97	△0.19
WTI	75.76	66.94	△8.82	64.16	64.35	0.18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美의 對이란 제재 강화 및 美 연준 금리인하 기대 지속으로 유가 상승 견인

- ⌚ 9.2일, 미국은 이라크를 통해 이란산 석유를 밀수출한 혐의에 연루된 이라크 사업가 월시드 알 사마라이와 관련된 회사 및 선박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됨
- ⌚ 또한, 미국의 7월 구인 건수 및 8월 ADP 민간 고용 등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제기되며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 단, 9.7일 OPEC+ 소속 8개 회원국이 10월부터 원유를 하루 13.7만 배럴 증산하겠다고 밝혀 상기 유가 상승 압력을 부분 상쇄함

월간 공급망

◆ 호주와의 핵심광물 협력, 한국 첨단산업 도약의 열쇠

작성 KOTRA 시드니무역관장 박창은

호주는 세계적인 핵심광물 부국이다. 1906년 서호주 그린버시스 광산에서 리튬이 최초로 식별된 이후 1983년 본격적인 리튬 광산 운영이 시작됐다. 1954년에는 캠벌다 지역에서 우라늄 탐사 과정 중 니켈 광산이 발견됐으며, 1967년 캠벌다 니켈 광산이 정식 개장하면서 호주는 주요 광물 생산국으로 자리매김 했다.

호주 지질과학청에 따르면 2024년 호주의 리튬 매장량은 세계 2위, 니켈 2위, 코발트 2위, 희토류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원 강국이었던 호주는 안정적인 제도와 체계적인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핵심광물에서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BHP 그룹, 리오 틴토(Rio Tinto) 등 글로벌 기업들이 호주 현지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이유다. 세계는 배터리, AI 등 첨단산업의 우위를 선점하고자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각축 중이다. 호주와의 핵심광물 협력은 우리나라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주는 2023년 ‘2023–2030 핵심광물 전략’을 발표했다. 단순한 자원 수출을 넘어 자국 내 정제·가공 산업을 육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2024년 5월에는 ‘A Future made in Australia’ 정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227억 호주달러 규모의 핵심광물 가공 및 첨단 제조업 육성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도 정책 추진은 이어졌다. 2월 호주 의회는 2040년까지 핵심광물 정제 및 가공 비용의 10%를 환급하는 70억 호주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제도를 통과시켰다. 4월에는 민간과 협력하여 핵심광물을 비축하고 일정량을 사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핵심광물 전략 비축 제도’를 도입했다. 비축된 핵심 광물은 주로 희토류를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호주 산업계와 국제 협력국에 제공될 예정이다.

국제 협력에서도 호주는 적극적이다. 2022년 미국이 주도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참여했고, 지난 6월 제정된 G7 핵심광물 액션플랜에도 공식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호주, 미국, 일본, 인도가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시켰다. 네 나라가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채굴부터 가공, 재활용까지 전체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재고 물량을 공유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호주의 핵심광물 정책은 정제·가공 산업 육성과 국제 파트너십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호주와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협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첫째, 정부·공공 차원의 협력이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광물 협력을 합의했으며, 한국 핵심광물 투자위원회는 호주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KOTRA는 호주무역투자대표부(Austrade)와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례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둘째, 민간투자 확대다. 호주 국민연금은 한국 기업과 공동으로 핵심광물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주 기업들은 한국 내 희토류 합금공장과 수산화리튬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다자 협력이다. 한국은 MSP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 공동 금융 조달을 주도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의 핵심광물 전략과 우리나라와의 협력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 달려 있다. 호주와의 핵심광물 파트너십은 한국이 첨단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급망 더 알아보기

◆ 글로벌 전략 광물의 생산 편중 현황 및 시사점

원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글로벌 전략 광물의 생산 편중 현황 및 시사점(2025.8.12.)

특정 국가에 생산이 집중된 광물은 수출통제 시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을 입힌다. 세계 전략 광물 76개 중 30개는 특정 국가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다. 생산편중 광물 30개 중 우리나라에서 본격 생산하는 광물은 8개, 현재 대량 생산되진 않으나 추가 생산 가능성이 존재하는 광물은 7개이다. 나머지 광물은 국내 생산이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며, 특히 니오븀, 흑연, 희토류 등은 수출통제 광물일 뿐만 아니라 수입의존도가 80%를 상회하여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향후 주요 생산국이 신규 또는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산 편중도가 높고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광물을 중심으로 ▲비축 확대 ▲국내 광산 신규 개발 및 재생산 지원 ▲재자원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 채산성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 광물에 대한 제도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생산 유도 및 국가 첨단산업 안보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 최근 주요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확대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

- ◆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중국은 텅스텐(2025.2.), 희토류(2025.4.)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잇달아 발표
- ◆ 특정 광물 생산이 소수의 국가에 집중될수록 수출통제에 따른 영향이 큰 경향을 보임

▣ 생산편중 광물의 수출통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영향

시기	국가	광물 (생산 비중)	영향
2025.2	DR 콩고	코발트 (글로벌 총 생산량의 약 3/4)	수산화코발트 가격 84% 급등
2025.4	중국	희토류 (글로벌 총 생산량의 약 70%)	디스프로슘 가격 3배 급등

▣ 글로벌 전략 광물* 76개 중 30개가 생산편중 광물**로, 특정 국가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음

* 美 지질조사국(USGS)에서 생산량 통계 파악 가능한 광물을 기준으로 함

** 생산편중 광물 : 1위 생산국이 글로벌 생산량의 50% 이상 생산하는 광물

- ◆ 중국은 대부분의 생산편중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갈륨, 마그네슘 금속의 글로벌 생산량 95% 이상을 차지
 - ▶ 국가별 생산편중 광물 수(개) : 중국(22) 미국(2) DR콩고(1) 인니(1) 남아공(1) 브라질(1) 칠레(1) 러시아(1)
 - ▶ 생산편중도 구간별 광물 수(개) : 90%이상(3) 80~90%(4) 70~80%(8) 60~70%(7) 50~60%(8)

▣ (수출통제) 생산편중 광물 30개 중 17개 품목에 대해 1위 생산국의 수출통제가 이루어짐

- ◆ 수출 통제 품목은 주로 반도체, 항공우주,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특징을 보이며 정·제련을 거친 화합물 또는 금속 상태로 중간·최종재에 활용됨
 - ▶ 일부 광물(형석 등)은 제품에 직접 삽입되지는 않으나, 생산 장비나 공정에 투입되는 주요 물질
- ◆ 생산편중 광물을 보유한 8개국 중 6개국이 해당 생산편중 광물에 대해 수출통제 중
 - ▶ 주로 ▲원광 수출금지(자국 내 광물 부가가치 창출 목적) ▲수출 허가제(별도 수출 허가 절차 필요) ▲수출 전면 금지(공급 억제로 가격 방어) 등의 형태로 통제

▣ (국내 생산) 생산편중 광물 30개 중 국내 대량 생산 광물은 8개, 추가 생산 가능 광물*은 7개, 기타 수입 의존 광물은 12개 * 소량 생산, 과거 생산 이력 보유, 신규 개발

- ◆ (주)고려아연은 주요 핵심광물(비스무트, 안티몬, 인듐, 텔루륨 등)을 국내에서 대량 생산하는 대표 기업
- ◆ 갈륨, 마그네슘 금속과 형석은 과거 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채산성 약화로 인해 현재 상업 생산 중단 상태
- ◆ 니오븀, 흑연, 희토류 등은 수입의존도가 80%를 상회하며 1위 생산국(브라질,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 (대응 방안) 수출통제 강화를 대비한 ▲비축 물량 확대 ▲국내 광산 신규 개발 지원 ▲생산 중단 광물의 재생산 지원 ▲재자원 기술 확보가 필요

- ◆ 과거 수익성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 광물의 국내 재생산 및 신규 광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 기업 대상 규제 완화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
 - ▶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 기업의 희토류 생산 확대를 위해 최소가격 보장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
 - ▶ 우리나라도 첨단산업 안보와 직결된 핵심 광물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광물 채굴뿐만 아니라 정·제련 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해 공급망의 내재화를 도모해야 함

▶ 핵심 광물 리스크관리 방향

분류	생산 편중 광물	생산 미편중 광물
국내 생산	생산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국내 생산 중단 국내 소량 생산	생산 재개 기업 인센티브 제공 신규 광산 개발 지원	광물별 첨단산업 활용도 및 정·제련 편중도 등을 감안하여 생산 기업 지원
국내 생산 불가	비축 물량 적극 확대 재자원 기술 확보	광물별 첨단산업 활용도 및 정·제련 편중도 등을 감안하여 광물 비축 시행

공급망 소식통

- ◆ 2025 수출 봄업코리아 WEEK 수출상담회 (바이어·국내기업 모집 ~9.25.)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2025 수출 봄업코리아 WEEK Korea Biz Week 2025

2025. 10. 21.(화)-22.(수) |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제1홀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수출 봄업코리아 수출상담회
- 개최기간: 2025. 10. 21.(화)-22.(수)
- 장소: 일산 KINTEX 제1전시장
- 개최규모: 방한바이어 700개사, 국내기업 2,000개사
- 프로그램: 1:1 수출상담회, 부대행사(세미나, 관세 대응 119 컨설팅 등)

참가 국내기업 모집

- 참가분야: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ICT, 콘텐츠 등 전분야
- 지원내용: 참가비 무료, 바이어 상담 매칭 및 통역 지원
- 참가방법: 웹사이트(boomup.kotra.biz) 회원가입 및 상담 신청
- 문의처: KOTRA글로벌공급망지원팀 gvc_monitoring@kotra.or.kr
02-3460-7760 / 7767 / 7769



행사 주요일정(안)

일자	주요내용	비고
9.1.(월) ~	상담주선 개시	접수기업 대상 우선주선
~ 9.25.(목)	국내기업, 바이어 모집 마감	
10.10.(금)	최종 상담스케줄 배포	
10.21.(화) ~10.22.(수)	수출 봄업코리아 상담회 개최	KINTEX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25 FTA를 활용한 글로벌사우스 진출 설명회 (상담회 선착순 마감)

작성 KOTRA 지역통상조사실

FTA해외활용지원센터 합동



2025 FTA를 활용한 글로벌사우스 진출 설명회

수출 유의사항 및 FTA 활용전략 실무가이드 A-Z

★ 현지에서 날아온 FTA전문가들의 '진짜 수출' 이야기 ★

오직 2025. 9. 26.(금) 13:30~17:10
코트라 국제회의장(B1)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 KOTRA FTA센터 야심작! 누적상담데이터기반 FAQ북 무료 증정 (선착순 100명)

설명회 (13:30 ~ 17:10)

시간

프로그램

13:30 ~ 13:40	환영사 및 축사 [KOTRA 이지형 부사장/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13:40 ~ 14:00	관세조치에 따른 동남아 지역 공급망 재편과 시장기회 [LG 경영연구원 강준모 연구위원]
14:00 ~ 16:30	최근 수출시장 기회 및 수출기업 가이드 (FTA활용, 비관세장벽, 수입규제 등 유의사항) [FTA해외활용지원센터 현지 전문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16:30 ~ 16:50	FTA 활용 애로사항 해결 수출 성공사례 [커스앤 관세법인 박주형 대표관세사]
16:50 ~ 17:10	지원사업 및 서비스 안내 [KOTRA/FTA통상종합지원센터]

상담회 (13:00 ~ 17:50)

FTA 활용 수출 애로·비관세장벽·대체시장' 발굴 1:1 맞춤형 상담 동시진행 ★사전 신청 필수★

① 국가별 FTA 수출 정보

인니/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인도/태국/말레이시아

KOTRA FTA해외활용지원센터

② 원산지규정

FTA통상종합지원센터

③ 수출인증/시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글로벌 경제지표 ['25.9.9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환율

구 분	'23말	'24말	'25.8말	9/5	9/8	9/9	전일비	전년말비
₩/U\$	1,288.00	1,472.50	1,390.10	1,391.00	1,390.60	1,387.90	△0.19%	△5.75%
선물환(NDF, 1월물)	1,286.80	1,473.80	1,388.70	1,390.20	1,390.20	1,390.20	0%	△5.67%
₩/CNY	181.37	202.38	195.08	194.79	194.60	194.88	0.14%	△3.71%
₩/¥100	912.25	932.67	945.52	938.53	939.53	944.09	0.49%	1.22%
¥/U\$	141.19	157.88	147.02	148.21	148.01	147.01	△0.68%	△6.88%
U\$/EUR€	1.1105	1.0429	1.1669	1.1671	1.1717	1.1766	0.42%	12.82%
CNY/U\$	7.1092	7.2992	7.1303	7.1358	7.1335	7.1248	△0.12%	△2.39%

* '24년 평균 환율: (₩/U\$)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 1,414.03원, (₩/¥100) 955.41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9/8	9/9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69.24	69.71	0.5	△0.6	△6.2	
					0.7%	△0.9%	△8.2%	
철광석	89.35(9.23일)	100.00	105.70	107.65	2.0	18.3	7.7	
					1.8%	20.5%	7.7%	
비철 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9,810.50	9,822.50	12.0	1737.0	1116.5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613.50	2,621.00	7.5	511.0	104.5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5,095.00	14,970.00	△125.0	5.0	△130.0
					△0.8%	0.0%	△0.9%	

▣ 반도체

구 分	'23말	'24.11말	'24.12말	'25.7말	'25.8말	9/4	9/5	9/8	9월(~8)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1.74	1.84	1.75	5.50	5.46	5.61	5.63	5.65	5.60
	△14.8	10.8	0.5	190.5	174.3	184.4	185.5	186.8	185.4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6.38	6.68	6.63	8.60	9.48	9.48	9.48	9.48	9.48
	△2.3	4.0	3.9	35.6	50.3	44.4	44.4	44.4	41.2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分	12/29('23년)	12/27('24년)	8/22	8/29	9/5	전주비(8/29)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415.36	1445.06	1444.44	0.0%	△41.3%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分	12/22('23년)	12/24('24년)	1/2	9/2	9/3	9/4	9/5	전주비(9/4)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1986	1940	1963	1979	0.8%	98.5%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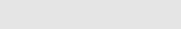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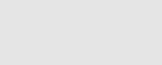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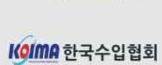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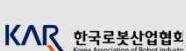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